

# 고슴도치 할아버지

정하득 대전 호스피스회 고문



호스피스 봉사자로 모 병원에 입원한 한 어르신을 만났다. 그는 간암으로 이 병원에 입원한지 한 달 만에 고슴도치 할아버지가 되었다. 간호사와 의사들이 그를 케어하는 과정에서 당한 황당함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다.

“너? 주사 솜씨 한번 좋다. 병원 그만두고 나가 돼지나 잡아라.”

손등에 멍든 주사 자리를 쳐 들고 호통을 치는 바람에 간호사들이 질겁하고 도망을 친다.

“또 주사냐? 아예 송곳을 들고 오지 그래?”

그의 분노는 날이 갈수록 하늘을 찢었다. 그런 그를 능숙한 말솜씨와 미소로 다독거리며 주사를 놓고 돌아서는 간호사의 뒤통수에 매몰 찬 한마디가 날아갔다.

“야, 너 녀석 참 좋다. 술집마담이나 해라!”

드디어 간호사의 항변과 함께 병실이 소란스럽다. 눈물을 찢끔거리며 병실을 나가는 간호사를 바라보며 그는 너무했다 싶었는지 자기 신세타령이다.

“그래, 나? 얼른 죽었어야지, 이렇게 사람대접 못 받을 바에야?”

오히려 적반하장이다. 늘 벌레 씹은 얼굴에 풍선처럼 부푼 분노가 기어코 터진 것이다.

그가 사는 곳은 서울인데 이곳에 입원한 것이다. 전직 소규모 건설업자

로 실패를 거듭하다가 돈 벌이가 되는가 싶은 때에 접고 말았다. 아들은 서울 모 대학 교수이고 며느리는 서울 인근 경기도 모 여고 교사다. 손녀 하나가 미국에 유학이 있고 손자는 S대를 낙방하고 삼수 중이다. 그의 아내는 1년 전 중풍으로 사망했고 이어 설상가상으로 간암에 걸린 자기 때문에 집안이 이 지경이라고 깊은 죄책감에 빠져있다. 장거리 출퇴근 하는 며느리의 간병이 소홀할 수밖에 없는 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이 가슴 한 구석에 바늘처럼 자리를 잡았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한 말이 그를 분노와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아버님! 애비 친구가 공기 좋은 시골 병원 의사랍니다. 그 애가 대학 들어갈 때까지만 거기서 요양하세요. 그 애 잘못하다가 삼수하게 생겼어요. 어찌겠어요?”

손자 녀석의 재수 삼수가 할아버지 때문이라는 며느리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며느리에게 떠밀려 이곳에 왔으며 몸서리를 쳤다.

“며느리, 그년이 문제야, 그런 것이 어떻게 애들을 갈쳐? 한심하데이!”

그는 아들이 불쌍하다고 했다. 며느리한테 꼭 쥐여서 자식 노릇 못하고 애비를 귀양 보냈다고 눈만 뜨면 며느리와 아들을 씹는다.

그간 며느리와 아들이 한 번도 오지 않은 것이 더욱 괴씸했다. 버림받았다는 상실감과 외로움이 밀물처럼 다가왔다. 간호사들 모두가 꼴도 보기 싫었다. 죽거나 병이 나아 퇴원하는 두 길 밖에 없었다.

“내가 병이 낫다고 해도 서울 집은 안가! 그것들 보기 싫어 안가고말고! 돈 걱정 없으니 친구가 내 살 집 좀 미리 알아보아 주게나.”

그는 어느 날 호스피스 자원 봉사자인 나를 친구라고 불렀다. 지속적인 만남이 서로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를 만날 때마다 그의 행동에 속 터지는 일도 많았지만 그의 말을 경청하고 이해하고 수용한 탓에 그와 흥허물 없는 사이가 되었다.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그의 얼굴이 전에 없이 환하다. 벌레를 씹은 그의 표정이 사라진 것이다. 그가 밝은 웃음을 띠며 어서 오라고 손을 흔든다.

“나? 이제 행복해! 살 것 같아, 퇴원해야겠어!”

뜻밖이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할 말을 잃고 어리둥절 하는 나에게 그가 한

장의 편지를 쑥 내 밀었다. 이 편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며 어서 읽어 보라고 재촉을 한다. 그가 늘 보고 싶었던 유학 간 손녀에게서 온 편지였다.

## 할아버지께

전략...

할아버지 소식을 듣고 무척 놀랐어요. 할아버지께서 시골 병원에 가 계시다니요. 말도 안 돼요. 할아버지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세요.

당장 달려가고 싶어요. 할아버지 소식을 듣고 밤새도록 울었어요.

엄마, 아빠가 정말 잘못된 일이에요. 조금만 참고 주세요. 곧 졸업해요. 한국에 들어가면 꼭 할아버지를 닮은 남자를 찾아서 결혼할거예요. 그때 제가 할아버지를 모실 거예요. 할아버지는 제가 사랑할 수 있는 이상적인 남자랍니다. 밤마다 할아버지 꿈을 꾸니다. 할아버지 쾌유를 위해 하느님께 매일 기도해요. 걱정 마세요. 하느님께서 할아버지를 결코 잊지 않으실 거예요. 지유의 손길을 반드시 뵈으실 거예요.

...후략

손녀의 장문의 편지는 눈물겹도록 간절했다. 할아버지에 대한 손녀의 따뜻한 사랑과 존경이 눈에 보이는 듯 선하다. 그는 손녀의 편지를 하루에도 수십 번 읽는다고 했다. 읽을 때마다 눈물이 쏟아진다고 했다. 그리고 딱 막혔던 가슴이 뚫리는 듯 시원함을 매번 느낀다며 울먹였다.

“할아버지는 제가 사랑 할 수 있는 이상적인 남자라는 것! 할아버지 같은 남자를 찾아서 결혼 하겠다는 것! 밤마다 할아버지를 위해서 하느님께 기도 한다는 것!” 이것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메마른 사막을 홀로 걷던 그가 손녀의 애절한 사랑에 감격한 사건은 의학적으로 충분한 플라시보 효과를 발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 손녀의 편지는 심심찮게 병실로 날아왔다. 손녀의 뜨거운 사랑은 그의 가슴에도 사린 차디찬 분노를 해동시키기에 충분했다. 그의 얼굴은 서서히 밝아졌다. 고슴도치 할아버지는 순한 양이 되어갔다. 병세도 눈에 띄이도록 좋아졌다. 머지않아 그의 건강은 회복될 것이다.

창가에 활짝 핀 목련꽃이 오늘 따라 더욱 아름답다.